

## ‘겁없는 18세’ 김주형 최연소 우승 재도전

부산경남오픈 준우승 이어 군산CC 연속 출격  
“세계 1위” 당찬 꿈…데뷔전 돌풍 이을지 기대



김주형

‘무서운 10대 돌풍’은 군산에서도 계속될 것인가.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 투어 2020시즌 개막전 우성종합건설 아라미트CC 부산경남오픈에서 파란을 일으킨 김주형(18·CJ대한통운)이 9일부터 나흘간 전북 군산CC C 리드·레이크 코스(파72)에서 열리는 두 번째 대회 KPGA 군산CC 오픈(총상금 5억 원)에 연속 출격한다.

김주형은 KPGA 데뷔전이었던 부산경남오픈에서 연장 접전 끝에 이지훈(34)에게 우승 트로피를 넘겨주긴 했지만 짜릿한 승부를 연출하며 준우승을 차지했다. 덕분에 세계랭킹도 127위에서 113위로 올라갔다. 부산경남오픈에 이어 군산CC오픈에서도 참가 선수 중 최연소이자 세계랭킹 역시 가장 높다.

2002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호주에서 살던 5살 때 처음 골프채를 잡고, 태국에서 2018년 아시아 투어에 데뷔해 프로에 입문하는 등 그동안 줄곧 해외에서 생활했다. 지난해 아시아 투어의 2부 격인 아시아 디벨롭먼트 투어(ADT)에서 3승을 거두고 11월 아시아 투어 파나소닉 오픈에서 역대 두 번째 최연소인 17세 149일로 우승하는 등 아시아 무대에서 일찌감치 이름을 날렸다.

드라이버 평균 비거리가 290야드 정도로 장타자는 아니지만 드라이버나 아이언, 샷게임 모두 수준급 실력을 갖췄다. 특히 어린 나이에 걸맞지 않게 게임 매니지먼트에도 강하다. 부산경남오픈 연장에서 1.5m 버디 퍼트에 실패하며 패했지만 김주형은 “지난 일을 마음에 담아두는 성격이 아니다. 우승은 놓쳤지만 준우승도 좋은 성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이번 대회에서 또 다시 우승 찬스가 찾아온다면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이 군산CC오픈에서 우승하게 되면 3개월 17일(109일)로 KPGA 입회 후 최단 기간 우승과 함께 18세 21일로 KPGA 코리아 투어 프로 신분 최연소 우승 신기록을 작성하게 된다.

김주형은 부산경남오픈 도중 “앞으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 가서 세계랭킹 1위를 찍고, 4대 메이저 대회에서 모두 우승하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털어놓기도 했다. 올 시즌 아시아 투어가 아닌 KPGA 무대를 주로 누빌 그가 세계랭킹 1위에 앞서 올 해 새롭게 삼은 목표는 KPGA 신인왕, 군산CC오픈을 통해 두 번째로 국내 무대에 서는 그의 샷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故 최숙현 선수 폭행·협박·성추행까지 일삼은 안주현씨 실체는?

## 팀 닥터? 거짓투성이 ‘무자격 운동처방사’



- 1 “김규봉 감독과 고향 선후배” 실업팀 트레이너 자격 익문
- 2 의사로 알고 있지만 의료면허 없고 물리치료사도 아냐
- 3 경주시청·협회·대한체육회·문체부 모두 안씨 실제 몰라
- 4 세계군인체육대회 2차레나 참가했지만 신원 파악 못해

가혹행위와 폭언·욕설로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전 국가대표 최숙현을 죽음으로 몰아간 가해 혐의자들은 법적 처벌과 별개로 ‘영구제명’과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6일 제4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최 선수가 생긴 몸담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과 주장 장 모에게 ‘영구제명’ 처분을 내렸고,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김 모에게 ‘자격정지 10년’을 결정했다.

그러나 함께 벌을 받아야 할 인물은 제외됐다.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폭력적 상향까지 드러낸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다. ‘팀 닥터’로 불린 그는 협회 등록자가 아니라 공정위에 회부될 수 없었다.

최 선수와 많은 추가 피해자들은 안 씨를 끔찍한 가해자로 지목했다. 그는 치료 대신 가학적 행동을 했다. 음주를 일삼고, 구타하고,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며 선수들을 못살게 굴었다. 심지어

다양한 명목으로 선수들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취한 혐의도 있다.

특히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선수들 상당수가 안 씨를 의사로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는 의료면허 소지자가 아니다. 정식 물리치료사도 아니다. ‘무자격 처방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무자격자가 어떻게 실업운동부에 들어왔는지 의문이다. 김 감독과 안 씨의 관계를 이상하게 여긴 한 체육인은 “둘이 고향 선후배 관계라고 했다. (안 씨가) 자신을 미국에서 ‘정골의학’을 공부했다고 소개했다. 혹여 진짜라 해도 실업팀 트레이너 자격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주시청과 협회,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모두 안 씨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니 어쩌면 당연한 얘기다. 선수들로선 감독이 각별하게 여기고 찰떡매는 안 씨를 받아들이려 했다.

그런데 둘의 행보는 경주시청에 머물

지 않았다. ‘군인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군인체육대회에 2차레(2015년 문경·2019년 중국 우한)나 참가했다. 김 감독은 문경대회를 앞두고 그해 2월 임시로 트라이애슬론 종목을 창단한 국군체육부대(상무)에 초빙 지도자로 위촉돼 군인 대표팀을 이끌었고, 안 씨도 의무 담당으로 함께 했다.

당시 비용은 국방부가 아닌 협회가 지원했다. 하지만 군은 체육회, 문체부와 마찬가지로 군인들의 몸을 관리할 인물의 신원과 정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상무에는 의무실이 있고 물리치료실까지 운영하지만, 안 씨와 같은 무자격자의 활동을 막지 못했다.

또 다른 체육계 인사는 “군 트라이애슬론 대표팀 운영을 위해 장기간 머물렀던 부대 내 게스트하우스에서도 이들이 음주를 일삼았다는 정황도 있다. 군인이거나 군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인들의 부대 내 비정상적 생활과 활동이 어찌서 허용됐고, 어떻게 관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협회와 경주시체육회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과 소속선수들에게 직접적 피해를 입힌 안 씨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 김숙현 선수 폭행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이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오고 있다.

## 문체부 직속 ‘스포츠윤리센터’ 출범…내일부터 특별신고기간

스포츠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검토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 13층 회의실에서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전 국가대표 최숙현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 및 인권침해 사건 관련 조치와 체육계 약·폐습 근절 및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회의를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에 관한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처벌을 주문한 데 이어 여성가족부 장

관, 법무부 형사 2과장, 경찰청 차장,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1시간 가량 진행됐다.

박 장관은 브리핑에서 “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스포츠윤리센터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기존 대한체육회 산하가 아닌 문체부 직속기관으로 두고, 신고접수뿐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고, 법률지원까지 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9일부터 특별신고기간을 설정해 선수 인권과 관련된

추가 사례가 더 있는지 파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국가인권위원회도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스포츠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추가 대책을 언급했다. 최 선수가 몇 차례 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지적에 박 장관은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 문제가 드러난 관련자들에게 대해 고발조치를 취하겠다”며 “일벌백

계’의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문체부가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6일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가해 혐의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과 주장 장 모에 ‘영구제명’ 처분을 내렸다.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김 모는 ‘자격정지 10년’이 결정됐다.

특별조사단은 7일 경주시체육회를 방문해 조사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특별조사단이 대한체육회 특별감사를 진행하는 등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면 이를 수사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9-03962호(2019.12.24) <COM-2019-12-30893>

## 내 보험! 보장빈틈 걱정없이!

꼭 필요한 보장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을 때, 이제 걱정 마세요  
큰병의 진단비도, 특약으로 생활비까지도 걱정없이!  
원하는 보장만 골라보험 빈틈을 꼭꼭 채워드립니다

**무배당 백세시대 (갱신형) 꼭하나건강보험**

|            |               |              |                    |                                  |                          |            |                  |
|------------|---------------|--------------|--------------------|----------------------------------|--------------------------|------------|------------------|
| 노출형<br>진단비 | 금성심근경색<br>진단비 | 암생활비<br>(특약) | 간염심사 통과 시<br>가입 가능 | 암에 걸린 적이<br>있어도<br>(최근 5년 이내 제외) | 나이가<br>많아도<br>(40 ~ 75세) | 자병이<br>있어도 | 수술<br>병력이<br>있어도 |
|------------|---------------|--------------|--------------------|----------------------------------|--------------------------|------------|------------------|

건강보험 꼭 하나  
들어야 한다면 전화주세요

# 080-860-6700

• 가입 후 첫날부터 보장가입 2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 진단금은 최초 1회만 지급  
• 암 특약은 가입 후 9일부터 소액암은 첫날부터 • 10년 만기 갱신형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갱신 시 보험료 인상 될 수 있음) •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입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상금에 가산된 금액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인수 가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유병력자 및 고연령자 대상 상품으로, 의사의 건강진단이나 일반계약 심사를 받을 경우 더 저렴한 일반보험 가입 가능함 • 당시의 인구 7군에 따라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전문 상담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 상품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AAA생명보험 주식회사

**스벤스 블랜더**  
상담원 시 무료중전  
(야간통화 시간: 2020.07.01 ~ 2020.12.31)  
• 필수 가입 기간: 최초 가입 이후 5년간 사망(보험사 지정)  
• 배율은 사망일 후 약 6주 소액(1인당 1백만원)  
(임시 사후를 지급 위한 2년 6개월 소액 지급)  
• 본 상품은 소비자가 기존 9인원을 초과하지 않음  
• 다른 건물으로 대에 발송할 수 있음